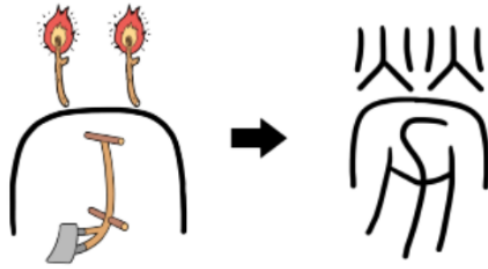


5(2)  
-  
31

회의문자 ①



勞

일할 로

勞자는 '일하다'나 '힘들이다', '지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勞자는 火(불 화)자와 冂(덮을 맥)자,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또는 熒(등불 형)자와 力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熒자가 '등불'이나 '밝다'라는 뜻이 있으니 勞자는 밤에도 불을 밝힌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勞자에서 말하는 '일하다'라는 것은 매우 열심히 일하거나 과도하게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勞자에는 '지치다'나 '고달프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勞

소전

勞

해서

5(2)  
-  
32

회의문자 ①



流

흐를 류

流자는 '흐르다'나 '전하다', '떠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流자는 水(물 수)자와 沝(깃발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沝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그린 것이다. 育(기를 육)자가 그러하듯 流자의 상단에 있는 云 것은 '어린이'가 변형된 것이다. 또 아래에 있는 儿 자는 물살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沝자는 아이가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沝자 자체도 '흐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水자를 더한 流자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글자이다.

流

금문

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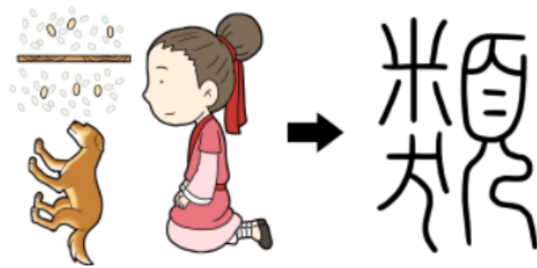
소전

流

해서

5(2)  
-  
33

회의문자 ①



類

무리 류

類자는 '무리'나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類자는 類(엇비슷할 뢰)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類자는 '엇비슷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類자는 이렇게 '엇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類자에 犬자를 결합한 것으로 '비슷한 개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類자는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리'나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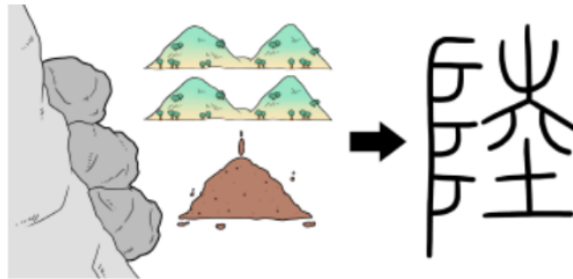
소전

類

해서

5(2)  
-  
34

회의문자 ①



陸

물 록

陸자는 '육지'나 '땅', '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陸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陸(언덕 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陸자는 阜와 산이 결합한 것이다. 여기에 언덕을 그린 阜자까지 있으니 陸자는 구릉과 阜, 산과 같이 육지의 다양한 지형을 그려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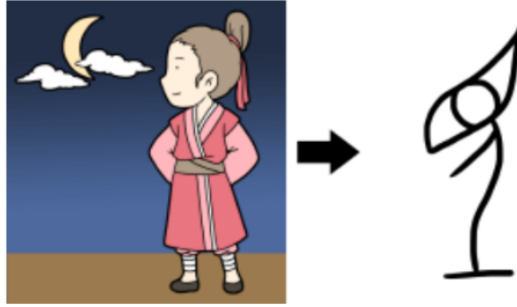
소전

陸

해서

5(2)  
-  
35

상형문자 ①



望

바랄 망

望자는 '바라다'나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望자는 亡(망할 망)자와 月(달 월)자, 壬(천간 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人(사람 인)자에 目(눈 목)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망보다'나 '엿보다'였다. 후에 의미가 확대되면서 '바라다'나 '기대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글자도 크게 바뀌었는데, 금문에서는 人자가 卩자가 되었고 月자와 亡자가 더해졌다. 여기서 亡자는 발음역할을 하고 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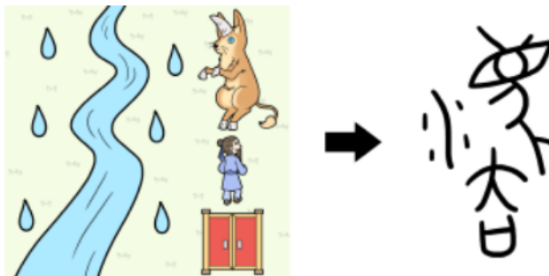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2)  
-  
36

회의문자 ②



法

법 법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麋)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麋)자는 해치수(解麋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리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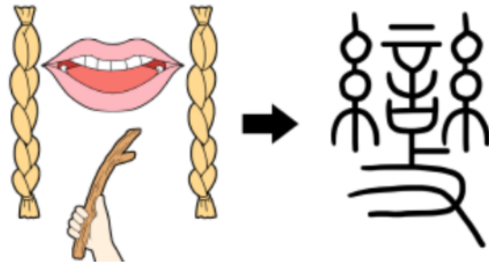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2)  
-  
37

회의문자 ①



變

변할 변

變자는 '변하다'나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變자는 繼(어지러운 련)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繼자는 말이 실에 꼬여버린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어지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變자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을 뜻하는 繼자에 몽둥이를 든 모습을 그린 攴자를 결합한 것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상황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래서 變자는 어지러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변하다'나 '고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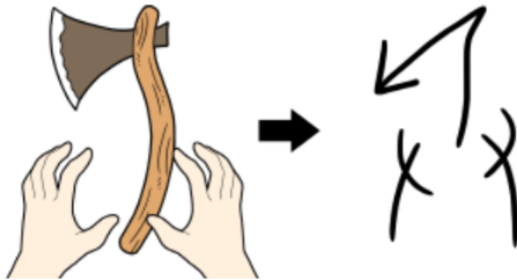
소전

變

해서

5(2)  
-  
38

회의문자 ①



兵

병사 병

兵자는 '병사'나 '무기', '싸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兵자는 斤(도끼 근)자와 卩(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兵자를 보면 도끼나 창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兵자는 이렇게 양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무기'나 '병기'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후에 '병사'나 '싸움'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兵

갑골문

兵

금문

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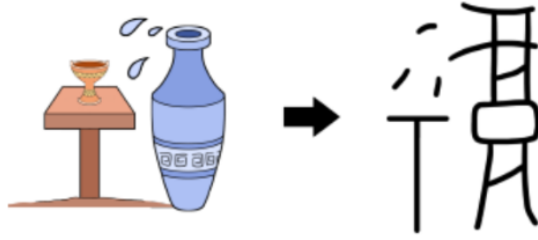
소전

兵

해서

5(2)  
-  
39

회의문자 ①



福

복 복

福자는 '복'이나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福자는 示(보일 시)자와 畚(가득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畚자는 술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福자의 갑골문을 보면 제단 쪽으로 무언가가 쏟아지는 듯한 모습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단에 있는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복을 기원하기 위함일 것이다. 福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이나 '행복'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福

소전

福

해서

5(2)  
-  
40

회의문자 ①



奉

받들 봉

奉자는 '받들다'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奉자는 大(클 대)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크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나온 奉자를 보면 약초를 양손으로 떠 받치고 있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한 귀한 것을 황제나 지역 관리에게 바쳐야 했다. 그래서 奉자는 귀한 약초를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바치다'나 '섬기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참고로 여기에 扌(손 수)자가 더해진 捧(받들 봉)자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奉

소전

奉

해서